

소사벌

非売品

창간호 1984년 12월

發行處：平澤文化院

發行人：金昌福

編輯人：李根榮

印刷：凡韓印刷

군민헌장탑

군민헌장

새리 소가될지 무요한 오곡은 우리 평택군민의 자랑이며 주민들의 삶들이
 다 기게 인정이 다사로운 이 세리 여천계 수고한 조상과 함께 지킬려고
 남달라 온화인의 정감계연을 추추하여 무궁한 번영을 다짐하자
 1. 삶을향겨 애락하고 정감은 생활유복을 이룩하자
 2. 연구한겨 활동한겨 우리민이 힘입하자
 3. 아름다운 자연스런 나와 이웃과 비교할을 아끼자
 4. 우리의 학원기상과 조상의 정기를 지킴에 민주정당에 이바지 하자
 5. 온 국민이 행복 화평과 번영으로 밝기의 생활을 이룩 하자

평택군수



社團
法人

平澤文化院

군민헌장

백리 소사벌의 풍요한 오곡은 우리 평택국민의 자랑이며 온 민족의 젖줄이다.

이제 인정이 다사로운 이 삶의 터전에 숭고한 조상의 얼을 되살리고 알뜰한 문화인의 생활 개선을 추구하고 무궁한 번영을 다짐하자.

1. 알뜰하며 따뜻하고 명랑한 생활 풍토를 이룩하자.
2. 연구하며 협동하여 부지런히 건설하자.
3.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와 이웃과 내고장을 아끼고 가꾸자.
4. 우리의 참된 기상과 조상의 정기를 되살려 민족 번영에 이바지 하자.
5. 온 국민이 자조·자주·자립으로 합리적 생활을 이룩하자.

평택애국가

작사 유달영
작곡 이홍열

민요풍으로



1. 바 라 보 면 가 이 없 는 천 리 평 야 에 들
2. 충 ~ 무 의 탈 이 되 어 서 운 의 용 들
3. 언 덕 마 다 풍 겨 나 는 포 도 의 향 기
4. 조 상 들 의 터 를 닦 은 이 좋 은 산 수

1. 비 단 위 의 무 늬 처 럼 고 운 손 외 들
2. 호 적 에 도 무 급 히 잠 은 장 쾌 한 기 개
3. 소 사 벌 엔 엔 학 이 날 아 처 금 물 결 이 는
4. 개 척 하 자 하 데 뭉 처 지 와 쇠 결 성 로

1. 진 위 안 성 두 강 물 이 하 나 로 흘 러
2. 바 위 조 차 영 용 으 로 승 리 거 났 네
3. 닷 새 을 주 는 어 신 들 은 풍 무 어 의 부 노 래
4. 새 역 사 의 깃 ~ 발 도 도 무 털 부 른 다

1. 서 해 물 결 굽 이 치 는 평 백 내 고 향
2. 점 ~ 의 나 피 가 살 아 한 결 같 고 향
3. 그 의 나 캐 어 가 면 무 결 같 고 향
4. 이 생 명 에 불 흘 달 려 밝 게 타 보 원 자

후 아 름 다 운 산 과 바 다 야 정 든 교 향 아
렙 하 느 님 이 내 려 주 신 만 세 의 나 토

刊 行 辞



本院院長

金昌福

『바라보면 가이없는 천리평야에 비단위에 무늬처럼 고운 솔피들…….』이 귀절은 愛鄉歌의 일절이다. 우리 平澤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기호地方의 유일한 穀倉이다. 옛말에 『平澤이 영글면 경기도가 굶지 않는다.』라고 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들판의 一角에 『소사벌』이라는 戰史어린 평야가 있다.

이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으로 평택문화원에서 『소사벌』誌를 펴내게 되었으며 當誌가 우리 고장의 諸般 문화활동에 대한 정보의 상호 교환이나 아울러 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대저 문화란 인간의 삶의 類型 혹은 生活方式 그 自體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사는 모습의 전부, 이를테면 지식·믿음·느낌·가치관·행위의 규범 등 상징적이고 제도적인 것 뿐만 아니라, 기술·도구·의식주의 수단 等の 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삶의 設計 등이 곧 문화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개념 구성에 비추어 그 創造 내지 창달을 期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원은 1950年代 初에 야간학교의 개설, 문화강연, 계몽활동 등에 주력한 바 있고, 그후 1960年代 중반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의 발효로 각종 시책의 홍보에 일익을 담당한 바 있다. 그리고 평택 문화원은 71년 2월에 민 형식 등 諸氏의 발기로 문공부의 승인을 얻어 향토문화사업의 發足を 보았다. 생각컨대 고장의 문화원은 조상 傳來의 美風良俗 내지 생활문화로 하여금 先進문화 창조의 轉換的인 主役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고장에서 삶을 營爲하는 모든 분들은 물론, 고향을 사랑하는 人情 어린 여러분들에게 『소사벌』誌로 하여금 愛鄉의 희망과 용기가 샘 솟게 되는 『펄펄』이 되기를 간구할 따름이다.

끝으로 『소사벌』誌의 刊行에 있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문예진흥원과 愛鄉유지 여러분께 충심으로 謝意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郡沿革

삼국 시대 연달부곡(淵達部曲)이었던 본 지역은 경기도와 충청 남도 양도경(兩道境)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중세기 이후 그 소속과 명칭에 있어 변동이 심한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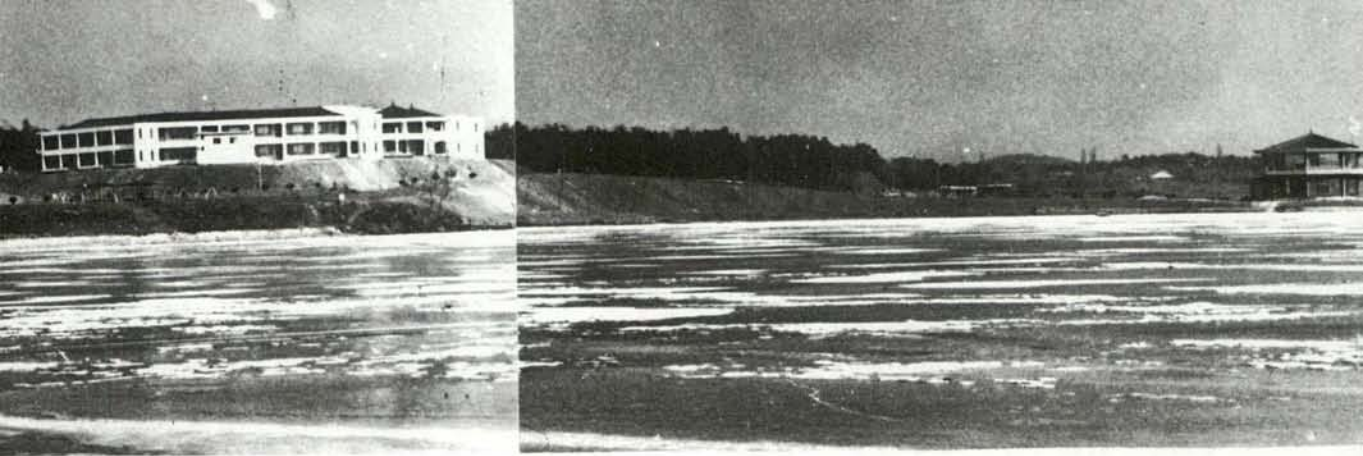
광개토왕(廣開土王)의 뒤를 이어 남진(南進) 정책을 강행한 장수왕(長壽王)은 백제(百濟)를 침공하여 남(南)으로 아산만에서 죽산령(竹山嶺) 내외까지 경계(境界)를 정하게 된 고구려 전성 시대인 서기 475년부터 551년 사이에는 부산현(釜山縣)이라 하였고 때로는 금산(金山)이니 송촌활달(松村活達)이라고도 불렀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수한 후인 서기 757년(景德王 16)에는 진위현(振威縣)이라 개칭하였으며, 서기 940(고려太祖 23년)에 지방제도를 혁신할 때 진위현을 수주(水州) 임내에 편입하였으며, 현재의 평택현(平澤縣)으로 개칭하고 그 일부는 천안부의 속현으로 편입하였다가 후에 복구하여 감무(監務)를 두었다.

이조에 이르러서도 현령(縣令)으로 계속되었으며 서기 1398년(太祖 7년)에 처음으로 충청도의 관할을 벗어나 경기도에 이속(移屬)되었다. 이어 서기 1432년(世宗 15년)에는 영신현성을 전부 폐합(廢合)하였다. 원래 영신현은 진위(振威)에 남접(南接)한 소지역(小地域)으로서 영풍(永豊)이라고도 하였으며 일찌기 양성현(陽城縣)에

속하였는데 서기 1413년(太宗 13년) 조개시(條改時)에 현감(縣監)이 되고 서기 1505년(燕山郡 1년)에 군 전체가 경기도에 이속하였다가 서기 1506년(中宗 元年)에 복구하여 다시 충청도에 편입되었다. 서기 1914년(高宗 32년) 3월에 개혁시 충청도의 평택군 전역과 수원군의 종덕면(宗德面), 울북면(栗北面), 수북면(水北面), 토진면(土津面), 서신리면(西新里面), 청용면(靑龍面), 숙성면(宿城面), 오정면(梧井面), 안외면(安外面), 승량면(升良面), 가사면(佳士面), 광덕면(廣德面)을 합부(合付)시켜 진위군(振威郡)이라 칭하고 병남면(丙南面)인 현재 평택(平澤)에다 군치(郡治)의 위치를 두었다가 서기 1924년 10월 1일 현재의 명칭인 평택군(平澤郡)으로 개칭되었다.

- 서기 1939년 10월 1일 : 부령(府令) 제 197호로 평택면(平澤面)을 평택읍(平澤邑)으로 승격
- 서기 1963년 1월 1일 : 법률 제 1177호로 송탄면을 송탄읍(松炭邑)으로 승격
- 서기 1972년 9월 1일 : 평택군 조례 제 330호로 평택군 안정 출장소를 설치하여 팽성면 일부지역을 편입 관할
- 서기 1973년 12월 19일 : 아산만 대단위 농업용수사업 준공으로 아산만 방조제 준공
- 서기 1973년 12월 20일 : 남양만 방조제 준공



- 서기 1979년 4월 28일 : 평택군 조례 제 615호로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읍에 동부, 중부, 서부, 북부 출장소를 설치하였음
- 서기 1979년 5월 1일 : 대통령령 제 9409호로 팽성면이 팽성읍으로 승격
- 서기 1980년 2월 11일 : 평택군 조례

647호로 평택군 안정출장소를 읍(邑)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수행하고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팽성읍 출장소로 변경하였음.

- 서기 1981년 7월 1일 : 법률 제 3425호에 의거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되어 평택군에서 분리

牙山湖 觀光地 現況

◎ 아산호 관광지는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과 충남 아산군 인주면에 경계하고 있으며

1977년 3월 31일 경기도 공고 제 77-101호에 의하여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人工湖水와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牙山湖가 觀光地로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곳을 찾는 인파가 觀光地 開發后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같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유로는 인구 밀집 역인 서울과 인천에서 약 100km의 2시간 소요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활한 2천 8백 ha에 담겨있는 1억 4천여톤의 牙山湖가 찌든들 都市내음을 단번에 씻어버리기도 하듯 반겨주는 데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牙山灣이 시원하게 클로소업되는 등 경관이 좋은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는 고속도로 안성(평택) 인터체인지에서 서쪽으로 약 8km에 위치한 평택읍을 거쳐 계속 서쪽방향으로 달리면(약 16km) 안중 네거리가 나오고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8km쯤에 아산호 관광지가 광활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다.

仁川의 경우는 京水産業道를 타고 水原에서 역전 地下道를 利用 오목동을 거쳐 發安으로 잇는 西海産業道를 타고 2次線의 道路가 비교적 한산한데다가 노면(路面)도 좋고 주변 경관마저 쾌적하여 지루한感이 없이 安仲을 거쳐 곧바로 목적지(目的地)에 닿을 수가 있다.

2천 5백여m(높이 17m)의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京畿道와 忠南을 구분시키고 있는 곳에서 溫陽과 삼교까지는 24km와 8km 이내 거리로서 소요시간도 10분과 20분 내에 주행할 수 있다.

주말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牙山湖는 平澤郡이 湖水를 이용한 관광단지화를 위해 지난 82년부터 본격적인 投資를 시도 今年까지 投資된 金額만도 25억 여원으로 食堂과 점포들이 새로 단장되었으며 테니스장과 운동장, 숙박시설, 해수욕장 각종 놀이터 시설

등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또한 담수물에서 즐길 수 있는 유람선과 모타보트, 수상스키를. 이로 인해 연인 등 가족이 함께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또한 각종 해산물이 많아 아산호에서 잡히는 뱀장어, 잉어, 붕어, 우렁피라미와 바다에서 잡히는 송어, 낙지, 농어, 민어, 꽃게, 우렁이 등의 싱싱한 회가 미각을 돋구어 주고 있다.

식도락가들의 적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活魚회는 다른 곳에서 흔치 않은 持味이기도 하다.

이곳에 새로 꾸며진 40 개의 회전문 식당은

가격도 저렴하여 민어나 농어의 경우 1인당 6천원 정도이면 싱싱한 회에다 매운탕까지 곁들일 수가 있으며 요사이 여성들로 즐겨 찾고 있다는 산낙지도 1인당 2천 5백원 정도이면 한 마리 꼴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구미(口味)를 돋우는 것은 이 地域에서 生産되는 農産物로 즉석 양념을 하기 때문에 감칠맛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다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노천어시장은 방금 배에서 올라온 고기들의 싱그러움이 진풍경을 이루기도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양식계원들이 光 쳐리로 말린 생선들이 곁들여지기도 하여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평택군 역점 사업

(자료 : 평택군청)

실과소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사업장	예 산 액	추 진 상 황
	취 로 사 업			104,955	(기타 2,620)
		소 하 천 정 비	320 m	8,770	추진기간 : 84. 2. 1 ~ 6. 16
		도로 및 농로보수	22485m	81,534	사업완료
		하 수 구 정 비	1531m	12,077	
	공중변소신축		1개소	11,000	추진기간 : 84. 7. 2 ~ 9. 30
			10개소	43,150	실제완료 :
	간역급수시설				추진기간 : 84. 5. 1 ~ 7. 15
					진 도 : 55 %
	어린이공원보수		5개소	3,500	추진기간 : 84. 5. 2 ~ 5. 7(100%)
	아동복지시설 놀 이 기 구		2개소	2,000	추진기간 : 84. 6. 10 ~ 6. 30(100%)
	심 신 장애자 복지시설 증축		264m ²	51,476	추진 간 : 84. 6. 1 ~ 10. 30 진 도 : 50 %
	집단영세민촌 환 경 개 선	도 로 포 장	3개소	81,296	추진기간 : 94. 4. 1 ~ 12. 30 진 도 : 20 %
		하 수 구 정 비	430m		
		석 축 보 수	800m		
		주 택 개 량	50m		
			33동		

새마을과	새마을마을권 사업			85,060	84. 4. 30 일 사업완료(113%)
	진입로포장	2400m	37,973		
	안길포장	1590m	41,073		
	하수구설치	150m	2,122		
	비축자금	양회1600대	3,892		
	광역권사업			300,200	84. 5. 10 일 사업완료(111%)
	평택읍죽백권역	1722m	89,200		
	서탄면마두권역	1120m	60,000		
	오성면창신권역	1700m	80,000		
	오성면안중권역	1300m	63,000		
	외국인 홍보 마을육성사업 (고덕면방축리)			127,200	추진기간 : 84. 6. 1~7. 30일 착공일 : 84. 6. 1 준공예정일 : 84. 7. 30 진도 : 50%
	안길포장	1162m	46,500		
	진입로포장	520m	37,200		
	하수구설치	640m	21,000		
	공동건조장설치	204평	9,500		
	석축	140m	10,000		
	십기밋스라이드	5종	3,000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180,000	추진기간 : 4. 20 ~ 6. 30 완료 : 84. 6. 27일(100%)
	한우입식	151두	163,500		
	공동담구입	2336평	16,500		
역전~계천리간 하수도	700m	65,000			
농협~경찰서간 하수도 공사	57m	9,000		306m 설계 완료 84. 7. 20 착공예정	
평택 팽성 하수도 준설	55455m ²	6,000		84. 6. 30 일 사업완료	
재해대책재료 구입	(마대 5,000매 말뭍 700본)	3,350		84. 5. 25 일 구입완료	
안중 진입로 신호등 설치	1개소	15,000		84. 7. 20 일 착공예정 (경찰서 시행)	
안중 점멸등 신설	2개소	1,600		"	
기계공고~ 통복교간하수도	4개소	3,000		84. 3. 29 일 완료	

	지장전주이진 평택읍시가지 포장보수 서탄 진입로 철길밀 보수 도로표시판 설치	(아스콘 1a 배수펌프 1식)	5a 23개소	10,000 3,000 6,500	설계중 84. 7. 30~8. 30 설계 계약완료 84. 7. 6~8. 30 추진기간 84. 8. 25~10. 20
건설과	아성제 유특 보수 방조제 보수 (포·현덕) 원예주산단지 소형관정 소형기계관정 엔진교체 소하천정비사업 평택·팽성시 가지차선도색 평택시가지 보도브릭개수	(평택·십정·서 탄 장수장)	6154m 295m 15 304 2개 1000m 5400m 35a	21,360 20,300 4,656 66,410 10,000 22,550 7,000 31,500	84. 4. 30일 사업완료 추진기간 : 84. 6. 7~7. 23 현재 마무리 공사중 84. 5. 10일 사업완료 " 항구대책 검토중 84. 5. 30 사업완료 1 차산업 완료 2 차산업 84. 7. 20~8. 10 추진기간 : 84. 8. 1~9. 20 현재 설계중

詩壇

하늘

평일국민학교 6-3

이화영

파아란

가을하늘 속에서는
꽃과 곡식을 실은
손수레가 달려 가고 있어요.

손수레 속에는
빨갛고 하얀
코스모스 꽃들이 웃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고요.

풍년을 약속한
고개속인 벼이삭들도
황금빛 옷을 펼치기면서
고운 얼굴로
얇전히 앉아 있어요.

파아란

가을하늘 속에서는
구름들이 요술놀이를 하며
놀고 있어요.

한 구름이
단풍잎이 되자,
다른 구름들은
가을 산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호호호 웃는 거예요.

요술 놀이가
재미 있나봐요.

평택 교육의 실태와 장래

평택군 교육장

박 한 동

평택군 교육청(교육장 박 한동)은 곡창지대 이면서도 군사의 요지로 경기도 남부 관문에 위치한 평택군, 송탄시의 초·중·고 68개교에서 1,729명의 교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다듬는 평택교육”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택군이 갖는 경제, 사회, 문화, 지리적인 특색은 교육을 통하여 애국, 애족, 애향하며 부지런하고 슬기로운 향토의 역군을 육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1984 학년도에는 주인의식 교육의 실천,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 교단지원 행정의 강화를 교육의 지표로 삼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주인의식 교육은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애국 애족하며 질서와 예절을 생활화하는 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1983년 9월에 창설된 경기학도애향대를 주축으로 학교에서 배운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가정과 사회에서 습관화함으로써 애향심을 퍼나가도록 하고 주인정신, 명예심, 도덕심, 협동정신, 사명감, 준법정신, 애국심, 반공정신, 통일 의지 등 국민정신교육 9대 덕목을 일상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한 미래의 선진 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역군을 기르고자 근검절약 정신을 생활화하며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새마을교육도 심화하는 한편 포승면의 이 대원 장군, 본정리의 홍학사 얼을 알고 이어받는 고장의 얼 계승 교육과 함께 생활에 절실 운영을 통한 전통 예절교육에 힘써 예의바르고 친절한 평택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면에서는 기초학력을 완전히 정착시키고 국민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여 외국어 회화력을 신장시키는 한편 특수아 교육에도 힘쓰고 있으며 학력의 고른 정착을 위해서는 예체능 지도의 충실과 기본학습 태도의 훈련, 전통 문화 예술의 교육, 그리고 올림픽에 대비한 기본 운동 능력의 균형있는 지도로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기교육의 추세에 따라 유치원 교육도 확대 실시하며 독서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기틀도 튼튼히 하는 한편, 고도산업사회에 대처할 고급 두뇌를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과

학 기교재를 확충하며 각종 과학 행사를 통하여 미래의 선진조국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째, 존경받는 교원상의 정립면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는 못한다.”는 의지로 훌륭한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스스로 연구하고 연찬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교육기술을 높이기 위한 현장 연구의 추진과 연구학교,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운영성과의 일반화로 교육 정보의 확산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육현장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육개혁의 의지하에 스승으로서의 바른 언행과 품위를 높여 존경받는 사도의 길을 향해 진력함으로써 사제간의 정이 두터워지고 기쁘게 가르치며 즐겁게 배우는 학원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 교단 지원의 강화면에서는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교사 내외의 정비와 실내 급수시설의 설치, 전 교실의 도서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교재 교구의 확충에도 힘써 현대 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교육시설의 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84년도 평택 교육의 시책은 내적으로는 학생들의 심성과 행동을 바르게 다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와 슬기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선진 조국의 창조를 향해 교육에 진력할 때 우리의 미래는 보다 밝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것입니다.

따뜻하고 명랑한 인간성 회복으로 고도 산업 사회에서 빛어지는 인간 소외의 비정함도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낯이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도 세계 속에 부각될 수 있는 위대한 국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평택 교육은 더욱 알차게 전진하며 다듬는 교육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평택 상공업 실태 및 전망

회장 金德潤

1984년 11월말 현재 평택상공회의소 관내 기업체는 총 156개사인데 이중 제조업체가 98개사, 운송보관업체가 20개사, 판매업체가 38개사로서 이는 전년에 비해 6개사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업체별로 분류하면 다음 별표와 같다.

구분	광업	식음 요업	직류및 피복복	제재및 목제품	지류및 지제품	화학 제품	토석 및 유리제품	일차금 속및금 속제품	기 계 제조업	전기기기 기 구	운 송 보관업	판 매 업	기 타	계
개	2	11	9	5	8	12	5	19	2	8	20	38	17	156

평택군은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교통이 사통팔달로 편리한 교통도시이며 곡창지대로서도 훌륭한 자연조건을 겸비한 지역인데 정부의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 건설부 고시 제 254호로 발표된 것을 보면 평택군은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이 추진됨으로서 성장잠재력은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동시에 추진케 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인구의 지방정착 기틀을 마련한 것인데 수도권역의 중소기업의 이전이 촉진됨에 따라 인구의 유입현상도 어느 도시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평택군은 지리적으로 중남부에 위치하여 있음으로 내륙상 경공업 및 유통산업과 아울러 의료·교육 등 지역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유통산업과 상·공업의 전달을 위한 고속도로 및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광충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공급시설인 평택화력발전소의 가동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P.G) 기지 건설과 주배관 건설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아산항 신설 계획과 산업기지로서의 기반이 착실히 마련됨으로서 발안·안중 등 서해안 지역을 집중개발하여 지역별로 수도권 중소기업 이전공장을 집단화 배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륙형 경공업 및 유통산업과 지역 서비스 기능의 강화는 평택읍을 거점으로 상·공업의 균등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평택군에 공장을 신축하는 회사로는 (주)청보식품, (주)진성 등이 있으며 허가를 득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만도 20여개사로서 선진 상·공도시 건설의 의욕을 북돋을 것이다.

郡誌申込 案内

本郡 郡誌는 平澤文化院에서 '81년 11월에 편찬위원회를 발족하여 '84. 11. 30일에 完了하여 現在 印刷中에 있어오니 所藏을 願하시는 諸位께서는 아래와 같이 申込을 바랍니다.

아 래

1. 發行處 : 平澤文化完 郡誌編纂委員會
2. 申込處 : 平澤文化院 事務局 (2-2184)
3. 供給價格 : 권당 25,000 원
4. 4×6 배판 1,000 頁
5. 申込要領

*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서 본원 우편대체 계좌번호 (100057-31~7334196)에 25,000 원을 내시고 계좌용지에 기입하고 申込하셔도 쉽게 예약됩니다.

* 현금에약은 본원 사무국에 내셔도 예약됩니다.

* 우체국 소액환으로 送金하셔도 됩니다.

数字로 본 이 고장의 農·林·水産業

〈농촌진흥청내 農振會·理事 奉明根〉

우리에게 있어서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비천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 事實이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쨌든 오늘날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 따위의 진보·발전에는 高次元의 속칭 『계산술』이 함축되어 있다. 이 고장 農·林·水産業의 다음과 같은 숫자는 얼핏 보면 짜증스런 느낌이 없지 않으나 가만히 들여다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내용이 푸짐하게 담겨져 있다. 우리 고장 농·림·수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숫자로서 여러 영역에 걸쳐서 吟味해 보시기를 간구한다.

이 고장의 農業立地 중 자연적 조건에 있어서는 年平均氣溫이 11°C 이고, 최고기온은 7월과 8월의 30°C 内外, 최저는 1~2월의 -8°C, 강우량은 年平均 1,135mm 이어서 대체로 온난기후대이고, 남동 및 북동 이 많이 불고, 겨울에는 강한 北西風이 분다. 첫서리는 10月中旬, 첫눈은 10月下旬, 첫비는 1月初에도 있고, 土壤은 식질로서 벼농사에 맞고, 야산에는 보리·고등채소가, 구릉지에는 낙농이 개발되고 있다. 과수 특히 배는 해방 전부터 일찍 발달되어 전국의 주산지에 속한다. 논·밭의 土壤은 양토 40.5%, 식양토 30.4%, 사양토 19.1%, 식토 8.3%, 사토 1.7%의 順이다. 농산물 소비 인구를 개관하면 평택읍 6萬, 송탄 6.5萬(미군기지), 서정2萬, 팽성(미군기지) 안중지역 5萬을 비롯하여 隣近都市 수원·서울·인천·천안·안성 등에 散在해 있다.

農業經營型態에 있어서는 대체로 논에서는 (벼+감자), (벼+호박), (봄채소+벼), (벼+마늘), 밭에 있어서는 (과채류+김장

채소), (참깨+김장채소), (과채류+상치·시금치) 등이다. 농민의 영농조직체로는 청소년회(6,335), 영농기술자회(6,335명), 영농기술자회(375명), 영농회(3,778명), 부녀회(7,500명), 흥농회(370명) 등이 있고, 총 1461개소에 21,698명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영농조직으로는 농협, 산림계, 토지개량조합, 부락 혹은 면단위의 각종 친목계(회) 등이 있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주요 권장 내용으로는 품종 및 토양개량, 재배법 개선, 병충해 방제 등 多岐하고, 교육에는 동계 농민교육·농기농민교육·각종 기술 홍보·전시사업·영농진단 등이 있다. 이밖에 농촌생활개선, 후계자 육성, 협의회 육성 등도 着目하게 된다. 流通改善 측면에는 시장정보센터의 활용, 계획 생산 및 계약재배가 시행되어 있고, 농산물 가공 시설 확충 및 공동 판·구매 사업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고장의 總 37,000家口 중 農家は 16,300호(43%), 비농가가 20,800호(57%)이고, 이를 인구수로 보면 총인구 175,000명 중 농가인구는 82,000(47%), 비농가인구는 90,300명(52%)이다. 비농가가 많은 것은 평택·팽성·진위 등지에 농가보다 비농가가 많은데 緣由한다. 즉 3개 읍·면에는 농가보다 비농가가 11,600명이 더 많다. 이것은 총 가구의 31%에 해당된다. 이를 인구수로 보면 총인구 175,000명 중 농가인구 82,000(47%), 비농가인구 90,300명(52%)이다. 이 점은 팽성의 비농가인구 비중이 높는데 기인한다. 특히 총인구수의 감소 현상은 78년 기준 82년에는 58,000명이 감소된 바 이것은 82년 인구의 33%에 해당된다. 이것을 농가인

구수에서 보면, 同年 기준 17,700명이 감소된 바 83년 농가인구의 22%이다.

총 경지면적 21,500ha 중 논이 17,300ha(81%), 밭이 4,200ha(19%)이며, 곡물 생산에 있어서는 미곡이 80,166ton(80kg 1㏊로 1,002,075㏊로서, 1㏊ 56,000원이면 그것은 56,116,200,000원)이다. 이것을年間 1가구 양식 필요량 10 (5인×2㏊=10㏊)의 경우, 농가 16,259戶×10㏊=162,590㏊, 비농가 소요량 20,799戶×10㏊=207,990㏊

이므로 잉여양곡(군외 반출 가능)은 631,495㏊(1㏊ 56,000원의 경우 35,363,720,000원이고, 82,000 농가 중 그것은 1농가당 431,264원 꼴이다.)이다.(註: 1ton=1,666.6z=1,000kg 이고, 80kg=1㏊로 할 때 12.5㏊)

맥류 생산(대맥·과맥)은 987.3ton, 조·수수·옥수수·기장·메밀 등 잡곡이 1511ton, 대두·강남콩·녹두·완두·채두·낙화생 등 두류가 1,453.7ton, 감자·고구마 등 서류가 978.2ton이다.

원예작물 생산에 있어서는 무우 398ha 파종에 20,939ton 생산(무우의 主産地는 화성·횡천·평창·완주·양주·당진·고창·나주·영암군 임)하였고, 배추는 505ha(81년도의 전국 재배 면적은 48,917ha)에 49,688ton을, 고추는 470ha에 539.7ton(5톤짜리 471트럭), 오이는 5,249.7ha에 47,608ton, 호박은 69.3ha에 1089.5ton(그 主産地는 양주·시흥·화성·부여·전주 등)을 생산하는 고장이다.

과일류 생산에 있어서는 사과 307.2ha에 912.9ton(1kg당 343원이면 313,159,000원), 배는 505.8ha(전국 재배 면적은 9,700ha)에 2,835.7ton(1kg에 333원이면 944,388,000원)을 생산하여 우리 나라 배 주산지인 양주, 나주, 천원, 안성 다음가는 고장이다. 복숭아는 28.9ha(전국은 10,195ha)에 148.9ton, 포도는 24.1ha에 201.4ton(주산

지는 김포·시흥·금릉·김천·경산·안성·용인·이천 등), 감은 15.9ha에(전국 7,621ha)에 56.1ton을 생산하고 있다.

특용작물 생산에 있어서 완초나 면화는 생산이 全無하고, 참깨는 180ha(전국 37,513ha) 파종에 107.2ton을, 들깨는 190.2ha(전국 23,764ha)에 140.7ton을 생산했다.(주산지는 청원·서산·증원·괴산·음성 등)

농업기계 보유 상황을 보면 경운기 6,161대, 트랙터 229대, 인력살분무기 3,509개, 동력살분무기 4,265개, 양수기 2,019대, 농용모터 1,279대, 동력이앙기 690대, 파종기 123대, 제초기 16대, 사료절달기 140개, 예취기 36대, 바인더 403대 등으로 보다 많은 수요나 혹은 공동 이용이 所望된다. 한편 콤팩트는 149대, 곡물가공기계류 592대, 동력가마니틀 65대가 있으며 대형 농기계의 도입 활용도 아울러 孝容되어야 할 主場이다.

비료 공급에 있어서는 3요소의 경우 5,037ton, 농약 공급은 물량확보 127,751ton에 공급이 97,642ton이다. 퇴비 생산은 동·하계에 391,575ton(5톤트럭 78,315대)를 생산했다. 추곡 수매에 있어서는 15,483,474kg(80kg 1口로 193,543.4口)을 매상했고, 하곡 수매는 409,350kg(80kg 1口로 5,117口)이다. 소규모 도정공장은 171개소가 있다.

가축·가금류의 현황은 한우 사양 가구 4,343호에 6,159두, 우유는 1,239호 8,077두(1일 착유량 82,320kg<암컷 7,538두, 숫컷 539두, 착유두수 3,739두>), 관리자는 가족 1,785명, 고용 265명)이고, 닭은 1,793호에 397,225수, 산양 235호에 488두, 토끼 522호에 2,524마리, 오리 25호에 428마리, 거위 7호에 20마리, 사슴 26호에 151두, 육우 45호에 744두, 칠면조 21호에 233마리, 꿩 1호에 2마리,

멧돼지 6호에 49두, 꿀벌 73호에 769쌍자가 있다. 가금류의 專業化도 간과할 수 없는 『테마』이기도 하다.

한편 수의사는 8명, 그중 공의수가 2명 있다. 가축방역에 있어서는 돈코레라, 광견병, 뉴캐슬 방역에 전 두수에 예방약을 시용했고, 축산시설로는 목장이 1,239개소, 부화장 4개소, 도축장 1개소, 유가공공장 2개소, 집유소 1개소가 있다. 도축은 소의 경우 年間 1,733두, 돼지 14,751두이다. 양잠농가는 55호, 기설상전본면적 9.86ha, 소잠수 161kg이다. 임야면적은 국유림 429ha, 사유림 1.94ha, 군유림 144.79ha, 사유림 9,463.27ha, 10,039ha이다. 그중 침엽수림이 約 8割, 나머지가 혼효림이다. 양묘 생산업자는 3호에 5개소의 묘포를 가지고 있으며(38,614m²) 조림에 있어서는 조림 면적 258.70ha에 194,000본을 식수했고, 제재업 종업원 수

는 83명, 산림계는 72개소에 계원 수는 8,098명이 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총가구 397호 중 전업이 227호, 겸업이 170호 있다. 어로경영을 보면 396가구, 내수면 양식 1가구가 있다. 이 고장 西海岸에서의 어획고는 새우 103,867kg, 바지락 69,470kg, 망둥이 47,511kg, 굴 40,958kg(상품 10kg에 23,000원의 최근 도매시세), 송어 7,315kg, 소라 3,175kg, 쫄그미 2,645kg, 서대 1,112kg 등 총 378,606kg이다. 소유어선은 총 477척, 595.9ton이다.

이상이 이 고장의 숫자로 본 농·림·수산업의 개황이며, 각 숫자를 예컨대 쉽게는 百分比에서부터 또는 상관관계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황과 그 내력이거나, 혹은 복지 농·림·수산 내지 선진 평택내고장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 등 다 각도로 조사·분석되어야 할 우리의 課題일 뿐이다.

(참고자료 : 농림통계계보·물가총람·군통계년보 등)

평택 문화원 전시실 소식

5. 8 ~ 12	청담중종합고등학교 부처님 오신날 기념 전시
6. 9 ~ 12	동권 전시 (황 창국 소장품)
6. 15 ~ 19	한국미협 평택군 지부 서화 전시
6. 25 ~ 29	르리슴 크림 한미 2인전
9. 5 ~ 7	평택중고등학교 미술실기 전시 (평택군 교육청)
9. 13 ~ 15	반공사진 전시 (반공연맹 평택군 지부)
10. 12 ~ 16	두암서예학원전
10. 26 ~ 29	르리슴크림 사진전
10. 30	한전 분재 전시
11. 1 ~ 2	평택 유아원 전
11. 3 ~ 8	문예진흥기금조성 특별 한국화 전시
11. 7 ~ 11	동중학교 미술전
11. 14 ~ 18	한광중학교 미술 전시
11. 19 ~ 22	한광여자고등학교 미술 전시
11. 24 ~ 27	동일고등학교 서화 전시
12. 1 ~ 5	삼정정밀 사진 전시
12. 6 ~ 8	함성 유치원 전
12. 13 ~ 17	한광중·고등학교 미술 전시

文化財 소개

▶ 萬奇寺 鐵造如來座像

이 鐵造如來座像은 振威面 東泉里 萬奇寺에 있으며 龍珠寺의 末寺로 高麗 太宗 25年(942)에 南大師가 創建하였다고 하나 撤廢되었고 지금은 新築한 大雄殿(正面4間 側面 2間 八作 지붕 丹青) 山神閣 寮舍 등의 建物이 있는데 이곳에 保管되어 있다. 境內에는 石塔 材 石佛 등 高麗時代 것으로 보이는 石材가 散在하여 있으나 缺失된 部材가 많아서 復元 不可能하다. 이 座像의 持徵은 左肩偏未且에 結伽座한 丹鑄像이며 髮肉과 螺髮 白臺 三道를 具有한 獨尊像이다. 座高가 142.5cm, 肩幅이 58cm, 膝幅이 92cm이며 이 座像의 持徵은 肩部 膝部の 彫成比例는 適切히 安定되어 있으며 全體的 驅幹彫法에서는 新羅時代의 風格이 尙在한 新羅末 高麗初의 佛像이다. 이 佛像은 寶物 第567호이다.

▶ 英雄바위

浦升面 晚湖里로부터 3km 地에 位置한 높이 15m 밑둘레 60m 크기의 우뚝 솟은 바위로 옛날 陸地의 어느 집 庭園에 있던 조그마한 바위였는데 큰 海溢로 인하여 그 곳이 바다로 되어 지금과 같이 雄大한 姿態로 海中에 출현하였다고 하는 傳說도 있고 壬辰倭亂 當時 倭敵이 牙山灣으로 侵入하였을 때 이 바위는 變形하여 我軍의 軍士를 指揮하는 將軍이 되고 그 周邊의 작은 바위는 軍卒로 變貌하여 나아가자 이것을 본 倭海軍은 大驚失色하여 退却하였고 그 후 朝廷에서는 바위의 공을 찬양하여 이 바위의 號를 英雄으로 稱하도록 하고 官職을 주고 玉實子를 내렸다는 傳說도 있다.

▶ 褒義閣

朝鮮 仁祖 때의 義士 洪翼漢의 碑閣인데 洪翼漢의 字는 伯升 號는 花浦 本貫은 南陽이다. 1624년에 及第하여 司書를 거쳐 司憲部掌令을 지냈다. 1636년에 淸나라가 朝鮮을 屬國親하는 悔辱的인 條件을 내세워 使臣을 보내왔을 때 淸나라 使臣을 죽임으로서 辱을 씻고자 主張했으며 마침내 丙子胡亂을 當했을 때에도 崔鳴吉 등의 和議論에도 극구 反對했으나 南漢山城에서 화의하여 吳達濟, 尹集과 함께 淸나라에 잡혀가 끝내 굽히지 않고서 處刑당하니 소위 丙子三學士의 한 사람이다. 뒤에 英위정을 추증하고 廣州의 南漢山城 안에 있는 顯節祠에 모셨다.

이 碑閣은 褒義閣이라고 하는데 神道碑, 墓碑, 洪學士의 어머니 碑石, 아들 碑石 등을 保管하고 있다. 碑文은 宋時烈이 지었고 1726년에 建立된 것인데 墳墓를 現 彭城邑 本井里 꽃산에 移轉할 때 近處에 移轉建立한 것으로 正面2間 側面1間(3坪 9.9m²) 八作 지붕이다. 洪學士의 衣冠을 말에 싣고 오면서 “大監”하고 부르면 鴨綠江까지는 對答을 하였으나 鴨綠江을 건너서는 對答이 끊어졌다는 傳說이 傳하여지고 있다.

평택과 평택 농악

편집부



농악의 유래

여러 학자나 고로(古老)간에도 농악(풍물) 놀이의 발전사를 정확히 고증한 자나 자료는 없다.

다만 상고시대부터 사냥, 농업, 무속 신앙 생활속에서 쇠를 치고 북을 치며 흥을 돋구던 것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애오라지들이 잡히는 이조 중엽 이후이며, 전국적으로 파생되기는 체계가 갖추어진 남사당이 풍물놀이를 전국에 유랑하며 생계수단으로 하면서부터였다.

농악이란 근래에 붙여진 이름이며, 본래는 사당패(士堂牌), 건립패(建立牌), 유랑패(流浪牌), 걸립패(乞粒牌)라 불리웠고, 자연부락의 농악대는 두레라 하였다.

1. 농악대의 유형

우리 나라 농악을 대별하면, 아랫다리 풍물과 웃다리 풍물로 나누며, 웃다리는 기호지방 놀이로 쇠를 중심으로 12마당, 26가지 변형을 가져온다.

상쇠의 리더에 의하여 가락과 리듬에 화음이 힘차고 30인 이상이 질서있게 율동함이 특색으로 전통성이 있다고 본다.

아랫다리 풍물은 호남지방, 영남지방이 특색을 달리하며, 호남은 장구를 중심으로 흥취가 일품이나 전체놀이가 단조롭고, 영남농악은 북을 중심으로 흥을 돋구나 짜임새가 완만하다.

2. 평택 농악(풍물)의 발자취

평택농악은 남사당(男士堂)의 영향을 배제하고는 말할 수 없다. 전국 초기 48. 49년 전국 농악대회에서 연이어 1등을 한 전통 평택농악은, 기능면에서 그 어느 농악단도 압도하였으며 지금은 70대를 바라보면서도 전통 평택농악 중흥을 위하여 활약하는 그들은 대부분 남사당패의 인물이었다.

남사당은 본거지를 안성 청룡사에 두고 평택의 소사벌, 도성뜰, 진위장안뜰, 성환, 둔포뜰, 멀리는 예산, 삼교, 당진, 합덕뜰로 놀이

판을 벌였다.

주로 기호지방에서 서민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즉, 지체높은 양반이 없었던 데서 그들 유랑집단은 안성맞춤의 생활터였다.

남사당은 왜정 등살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명맥을 유지한 것이 평택건립패(농악)였다. 건립패는 교량, 학교, 관공서 등을 건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고 또한 생계도 유지하였다.

이조 말엽 경북군 화재로 인한 재건 대역사 때는, 대원군이 도대방기(都大房旗)를 하사하고 북색을 주고 상쇠에게는 오위장(五衛將)이란 벼슬이 내려졌다.(유 세기 씨 증언)

잔존한 인맥으로는, 인간문화재 박 계순 여걸이 사단법인 남사당을 이끌고 있으며, 인간문화재 송 찬선 씨와 인간문화재 후보인 최은창(64), 방 오봉(64), 공 석봉(63) 등이 남사당패 출신으로, 평택농악 전승과 후계 양성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관련된 인물로는 국창 고 동백 옹이 살던 고장이며 유 세기(91) 옹은 전국 5대 놀이패인 진위패를 육성한 가문으로 농악, 시조 등에 조예가 깊으며 저서로는 (원형) 시조 창법(67년 발간)이 있고 현재 진위면에 거주하고 있다.

3.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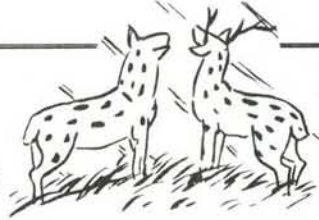
농악단의 편성은 영기잼이, 쇠잼이, 징잼이, 북잼이, 벽구잼이, 무동, 양반광대 등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격인 『모감이』 외에도 기획에 해당하는 『화주』를 따로 두었으니 총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4. 진행

가) 오방진(오방감기와 풀기)
나) 돌림판굿 다) 판굿
라) 당산벌림 마) 당산벌림에 절구맹이벽구
바) 사통백이 사) 돌림좌우치기
아) 합동좌우치기 자) 가새(위)벌림
차) 더더러기가락 카) 연풍대가락
타) 마당일체가락 파) 굿거리가락에 풍년가
하) 무동노리 햐) 열두발상모
이상 열 두 가지로 전개된다.

친 구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
1학년 이혜정



‘노오란 꽃봉투’

하루 종일 책상 위에 앉아서 책을 대하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밤하늘의 총총한 별 한 번 여유있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향하는 나에게 가슴가득한 기쁨과 감격을 안겨다 주는 것이 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들어서다가 무심코 버릇처럼 우체함으로 눈길을 돌렸을 때 노오란 꽃봉투가 시야에 들어왔다. 순간, 뿔뿔한 기쁨을 억누르고 내방까지 와서는 조심스레 편지를 뜯는다.

다섯 공주의 넷째 딸로 요번 여름방학 때 서울로 전학간 점희에게서 온 편지였다.

‘너무 보고 싶은 나의 친구야’를 첫머리로 한 편지 내용은 어제까지도 함께 공부한 한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했고 또 요즘 서울 학생들은 자기만 친구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변치않는 친구가 되자고 했다.

익숙하지 못한 서울 생활에서 점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궁금하다.

난 점희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줄까?

여고생이 되면서부터 난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걸 느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운동 가득차서 서로 시기와 헐뜯고 그 속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

우를 많이 발견하기 때문이다.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점희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계절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점희는 끝없이 울었다. 난 그에게 어떤 위로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야 했다. 그 가을에 점희는 부쩍 커버린 것 같다. 어려움에 처하면 그 당시는 무척 힘겹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해 가을이 점희에게 무척 힘겹고 아픈 가을이 될 것 같아 그때 편지를 썼다.

어떤 어려움도 서로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고 이끌어주는 참 친구가 되어보자고.

그 때부터 우리는 고요한 밤에 귀뚜라미소리 벗삼아 편지를 나누는 즐거움을 주고 받게 되었다.

지금은 비록 헤어져 있지만 난 점희의 변치않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진정 아낌없이 주며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겠다.

문득, 들관 가득 피어난 코스모스를 보고 기뻐 탄성을 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

바쁜 생활속에서도 잊지않고 편지해 주는 다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

오늘도 나는 그를 위해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였으면 한다.

코스모스

청담중학교 2-1 이현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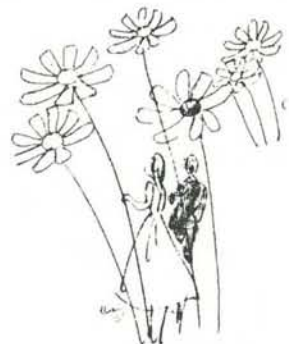
가냘픈 몸이 하늘거려
푸른 창공으로 향한다.

그 파아란 하늘이 토해낸
차디찬 무색의 파도를
듣이 쉬었기에
하늘을 닮아
그리도 맑은가 보다.

꽃 자락 떨치며
인내의 삶을 살았길래
그리도 꾀꿀했고

어디서 마주대해도
정겨운 자태이길래
그렇듯 하늘을
마주하지 않는가!

초가을 대지위에
그 옅은 꽃 자락이
청초한 내음으로
가득히 채우고 싶다.



□ 각종 행사소식 □

- ◎ 안중지구 체육진흥회에서 지난 8월 4일 안중중·종합고등학교 교정에서 평택체육회 후원으로 평택군 서부 사개면 리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 ◎ 한국 보이스카우트 평택지구 연합회에서는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청북면 청북중학교에서 제 9회 하계 야영대회를 개최하였다.
- ◎ 평택군 새마을 운동조기축구연합회에서는 제 3회 경기도지사기 쟁탈결 제 4회 大統領下賜 京畿道豫選大會를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는 새마을본부 정 경환 사무총장과 경기도지사가 임석하였다.
- ◎ 평택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20일 10시에 평택기계공고 강당에서 향토애향대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 ◎ 평택청년회의소에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 15차 경기지구 회원대회겸 제 9회 경기 청년대상 시상식을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하였다.
- ◎ 儒道會 평택지부에서 지난 9월 22일 10시에 평택향교에서 추계 釋尊大祭를 집전하였다.
- ◎ 한국청소년연맹 평택지구 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11시 평택국민학교 강당에서 초·중·고 연합 발단식을 가졌다
- ◎ 평택민방위협의회의에서는 10월 5일 제 13회 군민의날 기념식을 평택읍 복지관에서 거행하였다.
- ◎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10시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교정에서 상공회의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장새마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 ◎ 평택군에서는 지난 10월 16일 10시 군청회의실에서 제 10차 안보정세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 평택군에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 27회 평택군 새마을 청소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 한국전력공사 평택지점에서는 지난 10월 29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생산 현장 평택화력발전소 시찰을 위하여 평택군내 각 기관장 유지 등을 초청 시찰하게 하였다.
- ◎ 농협 평택군 지부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14일간) 서울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서 있는 '84풍년제 행사'에 평택지역에서 생산된 식용 박고지와 콩을 전시 판매하였다.
- ◎ BBS 평택군 지부에서는 지난 11월 7일 11시 불우환경으로 자녀까지 낳고도 혼례식을 못 올린 부부들 25쌍을 평택경찰서장 주례로 합동결혼식을 평택기계공고 체육관에서 거행하였다.

문화동성



- ◎ 한국미협 평택지부에서는 지난 4월 13일 지부 결성을 하고 초대 회장에 동양화가 조 성락 씨를 선출했다.
- ◎ 평택동고등학교 동창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 평택문화원 후원으로 엄 정행 초청음악회를 가졌다.
- ◎ 안중청년회의소에서는 지난 8월 18일 창립 4주년 기념행사로 초·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를 가졌다.
- ◎ 한국미협 평택지부에서는 지난 9월 18일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지부회원 작품을 출품하여 동양화 부문에 조 성락 씨, 조각 부문에 김 왕현 씨, 서예 부문에 박 석 준 씨가 각각 입선되었다.

- ◎ 한국미협 평택군지부에서는 지난 9월 12일 경기도 미술대전에 지부회원 작품을 출품하여 우수상에 김 왕현 씨, 특선에 최 장수 씨가 차지하였으며 권 재학씨 최 정숙 씨, 이 완수 씨가 각각 입선하였다.
- ◎ 평택군과 평택문화원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문예진흥기금조성 한국화 특별전시회를 가졌다.
- ◎ 단비합창단에서는 지난 11월 3일 19시에 평택읍 복지관에서 평택문화원 후원으로 제 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고향찾기 운동의 제창

노산선생의 당부말씀

【편집자註】 이 글은 노산 선생께서 1981년 9월 2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최, “향토사학교육과 문화원기능”에 관한 심포지움의 개회사가 거듭하여 평소의 소신을 피력하신 당부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 현상 중에 가장 중대한 병적 현상은 농촌을 이탈하고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나와 도리어 정착성 없는 부동 생활에 허덕이고, 마침내 그로 인하여 숭한 사회악이 병발함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원인은 안팎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여러 가지를 헤아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 경제의 궁핍성, 농촌 문화의 낙후성, 농촌 생활의 불안정성 때문에 좀더 나은 생활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욕망에서 도시를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 근대화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고도의 산업화라는 것이, 바로 그대로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화를 뜻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농촌의 젊은 남녀들을 불러내게 되고, 마침내는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이라는 병적 현상을 일으켜 놓게 된 것이다.

새마을 운동의 표면적 결과로, 초가을 지붕을 견고 기와를 얹어 깨끗한 외모를 갖추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을 들여다 보면 늙은 어머니만이 집을 지킬뿐, 아들은 인력 수출에 의하여 중동으로 나가고, 며느리는 도시로 나간 현상이 결코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이다.

아니 곳에 따라서는 빈집이 있는 경우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거기다가 학교의 교실은 비고, 유능한 교원도 떠나고, 그와 반대로 도시에는 이른바 콩나물교실이라는 문제거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해마다 보는 현상으로 모심는 때와 추수하는 때,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동원한다. 후방 군대의 군인들까지 동원을 해야 하는 일이 어찌 정상적인 현상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80년대에 들어서서,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 하여도 만일 그것이 도시 중심의 병적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농촌을 갈수록 더욱 피폐해지는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므로 도시권 중심 개발을 지향하고, 농촌권 개발이라는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병적 현상이 더 깊어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운동”, “고향 되찾기 운동”, “탈도시병 운동”, “농촌 회귀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이탈의 원인을 해소시켜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농촌 경제를 윤택하게 해야 하고, 농촌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높은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하나의 새로운 “국민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경제 운동이면서, 문화 운동이요, 정신 개혁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 있는 문화원을 활성화하여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이다. 문화원의 기본 사명이요, 기능이기도 한 것이다.

編輯後記

- 本院에서 작으나마 몇페이지 되지않는 「소사벌」을 내게 된것도 文藝振興院의 힘을 입은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든다.
여러번에 걸쳐 發刊計劃은 있었으나 豫算이 刻薄하기 때문에 미루었던 것인데 출작이라도 내고 보니 속이 후련하다.
- 막상 편집을 하고보니 허술한 곳도 많고 지면이 적어 못 읽은 것도 많은것 같으나 “배 곯은 사람이 한술에 배부름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차츰 해나가면서 더 나아지게 만들고 가꾸어 좋은 「소사벌」을 내볼 작정이다.
- 「소사벌」을 만들게 原稿를 주신 각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끊임 없는 후원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본지를 읽은 애독자도 많은 투고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언제든지 문을 활짝열고 기다릴 작정이다.

평택문화원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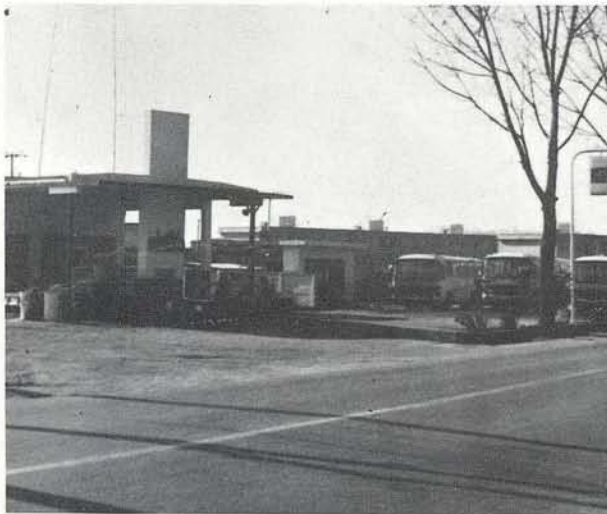
신 속 · 정 확 · 친 절



삼양주유소 ② 7771~4
평택읍 평택리 39-1



경기주유소 ⑦ 3370
현덕면 권관리 18-3



현촌주유소 ② 7778~9
평택읍 함정리 14-5



삼양세차장 ② 7775
평택읍 평택리 39-1

대 표 우 관 재 ② 7575

祝 創刊



民主正義黨 京畿道八地區黨
委員長 李 慈 憲
國會議員

民主韓國黨 京畿道八地區黨
國會議員 柳 致 松
總裁